

온앙을

경북교육 WEBZINE

Vol. 11.
2025년 가을호

특수교육

담다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1 기획 (Special theme) 04

- 1) 특수교육과 AI의 동행 모두를 위한 기술,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 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교수)
- 2)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
----- 이규만 (상주여자중학교 / 교장)

2 진단 (In Education) 20

- 1) 내 아이의 특별한 출발, 든든한 동행 특수교육 첫걸음 안내
----- 박수민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 2) 지원과 협력의 허브, 특수교육지원센터
----- 김기희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 장학사)
- 3) 함께 걷는 교육, 맞춤형 개별화교육과 행동중재의 만남
----- 박철현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① 도구를 넘어, 가능성으로! 경북교육청 보조공학기기 및 보행재활로봇 지원사업
박철현(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 ② 치료지원으로 학생의 삶을 바꾸다!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③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특별한 시간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④ 따뜻한 교육, 든든한 통학길
김소연(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⑤ 경북 특수교육대상유아, 맞춤형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든든하게 자라요!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⑥ 두 아이의 웃음,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김소연(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5) 꿈을 담고, 자립을 채우는 공간, ‘꿈담채’ 이야기
----- 김정민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 6) 예술로 피어나는 공감의 소리, ‘온울림’ 앙상블 이야기
----- 김정민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 7) 꿈과 희망을 더하고(+)-나누는(÷) 『재활승마 가족 캠프』
----- 강은정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 8) 경북특수교육, 직업·취업교육의 결실을 맺다
----- 박관모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9) 다가온(on),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성을 키우고, 가능성을 열다
----- 신아라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사)

3 함께하는 현장 (Community) 62

- 1) 만남,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들
----- 김주연 (경상북도교육청 온울림앙상블 / 이성빈 단원 부모)
- 2)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꿈을 담고 채우는 공간)
 -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 꿈담채가 나에게 준 선물
 -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담은 ‘꿈담채’ 정영민 (영주제일고등학교 / 3학년)
 - 이수빈 (상희학교 / 교사)
 - 꿈을 이루어주는 꿈담채
 - 신아연 (사동고등학교 / 3학년)

4 연구 (Academic) 74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유형이 대학진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임소정(인천대학교 / Academic Advisor),
조성빈(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조사원)

PART. 1

Special theme (기획)

ㄷㄷ

경북의 교실은 다양하다.
일반학교의 통합학급부터 특수학교,
농산어촌 학교까지 여건과 요구가 다르다.
그렇기에 AI 도입 역시 '일괄 도입'이 아니라,
학교 맥락에 맞춘 작은 성공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ㄹㄹ

특수교육과 AI의 동행 모두를 위한 기술,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 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 교수)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
----- 이규만 (상주여자중학교 / 교장)

특
수
교
육
》

담 다

특수교육과 AI의 동행

모두를 위한 기술,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1. AI 시대, 특수교육의 갈림길에 서서

인공지능(AI)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고, 교육 현장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특수교육 역시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 장애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해 이전에는 어려웠던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자연어 처리와 같은 기술은 신체적·인지적 장벽을 낮추어 학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김현집, 2025).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AI가 인간 교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장애학생들을 효율성 중심의 데이터 속 대상으로 전락시켜 오히려 더 깊은 교육적, 정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Selwyn, 2019). 특히, AI 알고리즘이 학습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데이터를 편향적으로 학습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특정 장애 유형의 학생들에게 불리한 교육적 판단을 내리는 ‘알고리즘 편향(Algorithmic Bias)’의 위험성도 제기된다(O’Neil, 2016).

II. 왜 특수교육에 AI 활용 교육이 필요한가?

미래 사회는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AI 시대를 살아갈 장애학생들에게도 AI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역량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이 AI 리터러시(AI Literacy) 교육에서 소외된다면, 기존의 정보 격차를 넘어 ‘AI 격차(AI Divide)’라는 새로운 불평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손지영, 임장현, 구정아, 2022). 따라서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을 넘어, AI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언어장애 학생이 AI 기반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지체장애 학생이 시선 추적 기술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경험은 기술 습득을 넘어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Ntoumanis, & Moller, 2025). 이는 코딩이나 알고리즘 교육 같은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AI의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까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북의 교실은 다양하다. 일반학교의 통합학급부터 특수학교, 농산어촌 학교까지 여건과 요구가 다르다. 그렇기에 AI 도입 역시 ‘일괄 도입’이 아니라, 학교 맥락에 맞춘 작은 성공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나의 학급, 하나의 도구, 하나의 목표부터 시작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며, 교사 전문학습공동체를 통해 실천 지식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지속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이 특수교육 현장에 AI 도입의 표준 가이드와 평가 틀, 현장 맞춤 컨설팅, 연수-장비-데이터 거버넌스를 묶은 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했을 때 학교 현장을 돕는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특수교사는 AI와 협력하는 ‘증강된 교사(Augmented Teach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권정민, 이영선, 2023; 김홍겸, 박창수, 정시훈, 고호경, 2018).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도전행동 영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행동의 유형과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중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교사와 학생의 교실은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행정 업무 등을 AI에 맡기고, 교사는 학생과의 인간 상호작용, 정서적 교감, 사회성 증진과 같은 고차원적인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AI 기반 보조공학 기기(예, AI 기반 AAC기기, 실시간 자막 생성기, 시각 보조 AI 앱/기기 등)를 수업 상황과 학생의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개선해 나가는 교육과정 설계자이자 실천가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III. AI, 특수교육의 혁신을 이끈다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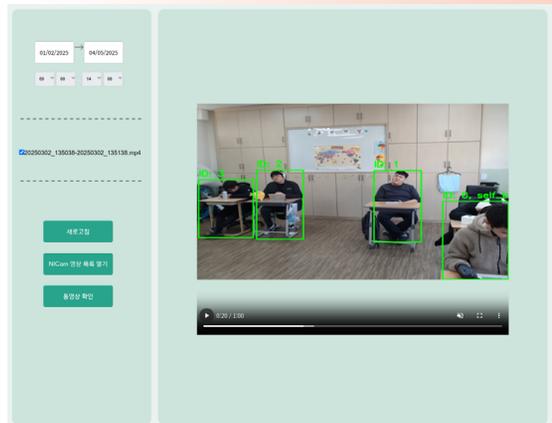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 학연연구소에서는 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AIoT 기반의 행동인식 및 중재 시스템과 온라인 코칭 플랫폼”을 개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의 행동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 1, 2 관절 간 거리 및 각도 정보를 활용한 행동 인식
- 3 실시간 다중 사용자 인식

사진출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연구소(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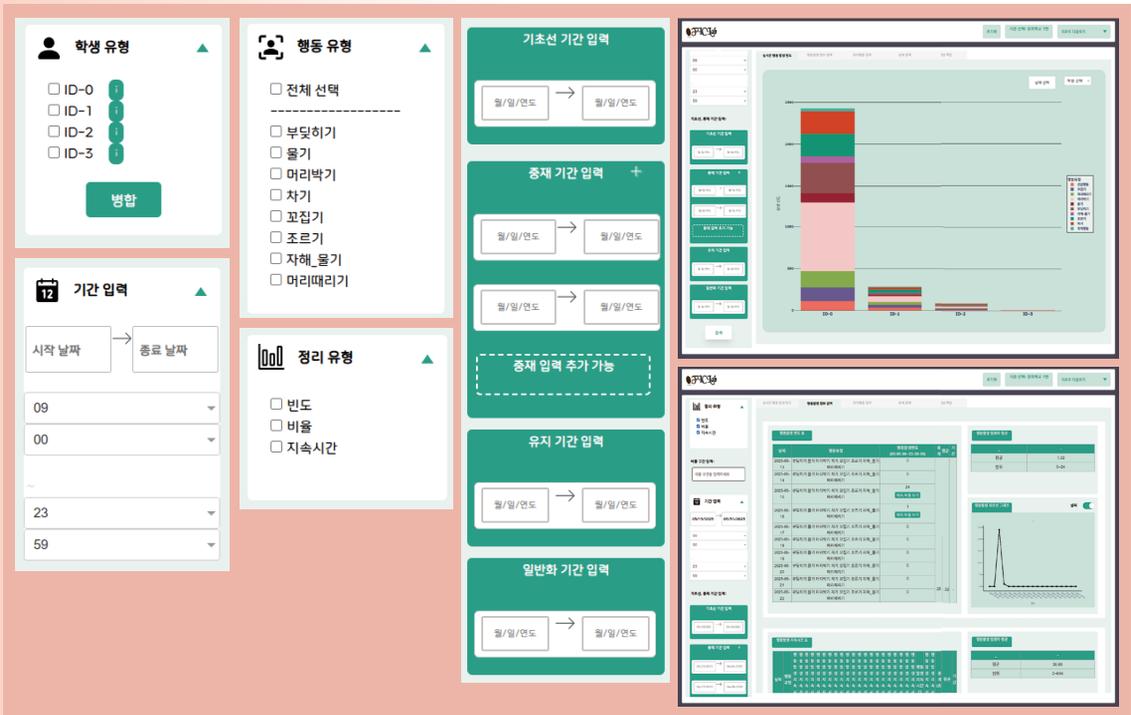
2



3

먼저, “AIoT 기반의 행동인식 및 중재 시스템과 온라인 코칭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자면, AI 기반 행동인식 및 중재 시스템은 도전적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의 중재는 교사의 주관적 관찰과 일화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분석의 객관성 확보와 일관된 중재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시스템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교실에서 앱(또는 카메라)을 통해 학생의 특정 도전적 행동(예: 자리 이탈, 자해 행동 등)을 24시간(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빈도, 강도, 지속시간 등을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게 했다(정우순, 정규만, 류정탁, 박경옥, 오유수, 2024; Devis & Oh, 2024). 수집된 데이터는 대시보드 형태의 시각적 그래프로 제공되어, 교사는 행동 발생의 추이와 특정 시간대나 활동과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응용행동분석(ABA)의 원리에 따라 행동의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분석하여 기능적 가설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양명희, 2016; 박경옥, 신윤희, 2025; Jung, Choi, & Oh, 2024). AI가 분석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은 교사에게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추천하고, 중재 후 행동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ata-Based Decision Making)을 지원한다. 이는 교사의 전



4 실시간 도전적 행동 모니터링 시스템

사진출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2025)

문적 판단을 돕고, 학생에게는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둘째, 시공간의 제약과 현실적 위험 부담없이 사회적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 교육용 콘텐츠이다.(박경옥, 한경인, 박지민, 류정탁, 2025).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상점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혹은 화재 대피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나 안전 훈련은 매우 중요해서 완전학습이 되도록 교육해야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상황에서 반복 지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에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사회과)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인사하기’, ‘점심 식사 예절 익히기’, ‘심부름하기’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했다. 학생들은 가상공간 속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몰입형 체험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한 기술이 실제 생활로 자연스럽게 일반화되도록 돕는 효과적인 전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는 시가 단순히 행동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험적인 중재 도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5 일상생활 훈련 교육용 콘텐츠

6 안전교육용 VR 콘텐츠

사진출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2025)

셋째, 온라인 코칭룸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문가, 교사, 학부모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이다. 지역적 한계나 높은 비용 때문에 행동 전문가나 치료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농산어촌 지역 학교나 가정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플랫폼 안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AI 시스템이 분석한 학생의 행동 데이터와 관련 영상 자료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로부터 원격으로 코칭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화상회의, 채팅, 자료 공유, 공동 문서 작성 등의 기능을 통해 다학문적 팀 구성원들이 마치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 코칭(Tele-Coaching) 모델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대면 서비스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이선희, 백은희, 2023). 온라인 코칭룸은 행동전문가, 의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의 전문가-교사-학부모-학생으로 이어지는 다학제적 팀 접근을 촉진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IV. 인간을 향하는 기술, 특수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

AI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인간 교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인간 교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특수교육 솔루션과 같이, AI는 교사가 학생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때 그 가치가 빛난다. 특수교육과 AI의 성공적인 동행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적 토대를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학생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교육부, 2022; 경기도 교육청, 2022). 나아가 AI가 왜 특정 중재안을 추천했는지 그 판단 과정을 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임희경, 김승언, 2022). 경북교육청이 주도하여 현장 교사, 학부모, 장애 당사자,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 ‘AI와 함께 성장하는 교사’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일회성 기술 활용법 교육을 넘어, AI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며, AI 윤리를 내면화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직무연수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교육 현황 파악·분석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연구소가 추구하고 있는 AI 기술을 ‘교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조력자’로 만드는 솔루션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AI를 낯선 기술이 아닌 든든한 동료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셋째, ‘데이터와 현장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미래 교육정책은 막연한 예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진단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국내외 교육 동향 파악 및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경북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현장을 중심에 둔 교육정책 개발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 연구소의 ‘AI 기반 행동인식 시스템’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현장의 살아있는 데이터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현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AI는 특수교육을 바꿀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학생의 존엄과 권리, 교사의 전문성과 관계, 지역의 교육적 연대를 중심에 둔다면, AI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삶을 더 안전하고 넓게 열어 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학생의 존엄한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특수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의 교실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표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22). AI 원리로 배우는 AI 윤리(https://wzine.kr/goe_ai/). 경기도교육청.
- 교육부 (2022).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 교육부.
- 권정민, 이영선 (2023). ChatGPT시대 인공지능교육정책의 문제점 고찰.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3, 9-38.
- 김현집 (2025). 특수교육과 AI 활용 교육의 융합 가능성 및 효율화 방안 탐색. 인공지능연구 논문지, 6(1), 13-24.
- 김홍겸, 박창수, 정시훈, 고호경 (2018). 미래교육에서의 인간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소고. 교육문화연구, 24(6), 189 - 207.
- 박경옥, 신윤희 (2025).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긍정적 행동지원 자기평가조사지(PBIS-SAS)의 번안 및 내용타당도 검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8(2), 1-22.
- 박경옥, 한경인, 박지민, 류정탁 (2025). 발달장애학생의 화재대피기술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VR 교육콘텐츠 개발 및 사용성 평가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1(5), 155-168.
- 손지영, 임장현, 구정아 (2022).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콘텐츠 활용 수업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요구 탐색. 특수교육연구, 29(1), 234-265.
- 양명희 (2016).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행동수정(2판). 서울: 학지사.
- 이선희, 백은희 (2023). 텔레코칭을 통한 가정기반 긍정적 행동지원이 발달장애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9(1), 57-95.
- 임희경, 김승언 (2022).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의 필요성과 연구동향. 정보기술융합공학논문지, 12(1), 51-57.
- 정우순, 정규만, 류정탁, 박경옥, 오유수 (2024). 공격 행동 인식 및 중재를 위한 IMU 기반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 스마트미디어저널, 13(5), 19-25.
- Devis, K., & Oh, Y. (2024). Detecting and tracking people in crowded environments with YOLOv7 and DeepSORT. Nanotechnology Perceptions, 20(7), 149-157.
- Jung, J., Choi, Y., & Oh, Y. (2024). DNN-based drum performance analysis system for the visual impaired. Nanotechnology Perceptions, 20(7), 189-198.
- Ntoumanis, N., & Moller, A. C. (2025). Self-determination theory informed research for promoting physical activity: Contributions,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0, <https://doi.org/10.1016/j.psychsport.2025.102879>.
- O'Neil, C. (2016).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Crown Publishing Group.
- Selwyn, N. (2019). Should robots replace teachers? AI and the future of education. Polity Press.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과제

이규만 (상주여자중학교 교장)



모두가 존중받는



성장지원 맞춤형 경북 특수교육 실현

경북 특수교육의 목표는,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을 강화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직업 교육의 활성화로 따뜻한 경북 특수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경북 특수교육의 추진 과제는,

0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장애 영유아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설치 확대와 특수교육 교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0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지원 강화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을 강화한다.

0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성장지원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지원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0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을 활성화 하여 장애학생의 취업을 확대한다.



<경북교육청 장애인 예술단 "온올림" 공연>

1.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을 확대하다.

장애영유아의 2차 장애 예방과 발달 촉진을 위한 조기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장애유형·발달 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상의 어려움 해소를 통해 초등학교를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다.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3.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다.

신·증설 특수학급 교육여건 개선비를 학급당 5,0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칭) 철곡 공립 특수학교가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또한 수업 지원 교사제,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 강사를 운영하고 있다.

4. 특수교육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다.

원활한 특수교사의 배치를 위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교원 중 보직 교사 배치를 하고 있다.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며, 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0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을 내실화하다.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학기 초 1~3주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교실 및 특별실 이동, 시간표 확인, 학부모 및 학생을 상담한다. 학생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실시한다.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다.

교(원)장·감을 대상으로 협력적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를 하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통합학급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상을 권장하며, 특히 순회교육대상학생과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며, 통합교육 지원단 연계 컨설팅 등으로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3. 일상적 장애 공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다.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장애학생의 인권을 강화하다.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을 함양 하고, 성교육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구축하였다. 그리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지역내 학교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즉각적으로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1.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다.

학교의 특성 및 여건, 학생의 교육적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하고,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2.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수립·운영하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로 구성하며,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을 제공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학기마다 실시한다.

3. 순회교육 지원을 강화하다.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습공간 및 학습 편의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재택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적응활동비 및 급식비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4.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다.

문화예술 거점 특수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체육 재능 키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경북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온울림' 앙상블을 운영하고, 경북교육청문화원, 지역 사회 예술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및 협력하고 있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경상북도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을 강화하다.

치료지원비, 통학비 지원,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을 지원하고, 재활승마 캠프와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다.

특수학교 진로연계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직업실기 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자격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비와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급)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 또한,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특수학교 학교기업(안동영명학교, 포항명도학교, 상희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2. 장애학생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다.

장애학생의 생애 맞춤형 전환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학생 현장실습 컨설팅 및 취업처를 발굴하며,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3.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내실화하다.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 및 실시 시기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지원 강화하고, 현장실습 사전교육 콘텐츠 보급을 통해 장애학생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1



2



3



4

- 1 공간혁신으로 새롭게 단장한 청리초 특수학급
- 2 구미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협의회
- 3 경북 장애학생 체육대회 실내조정 경기
- 4 전국 최초 장애학생 자립생활관 '꿈담채' 개관

PART. 2

In Education (진단)

내 아이의 특별한 출발, 든든한 동행 특수교육 첫걸음 안내

----- 박수민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지원과 협력의 허브, 특수교육지원센터

----- 김기희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 장학사)

함께 걷는 교육, 맞춤형 개별화교육과 행동중재의 만남

----- 박철현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① 도구를 넘어, 가능성으로! 경북교육청 보조공학기기 및 보행재활로봇 지원사업
박철현(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 ② 치료지원으로 학생의 삶을 바꾸다!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③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특별한 시간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④ 따뜻한 교육, 든든한 통학길
김소연(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⑤ 경북 특수교육대상유아, 맞춤형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든든하게 자라요!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 ⑥ 두 아이의 웃음,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김소연(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꿈을 담고, 자립을 채우는 공간, '꿈담채' 이야기

----- 김정민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예술로 피어나는 공감의 소리, '온울림' 앙상블 이야기

----- 김정민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꿈과 희망을 더하고(+). 나누는(÷) 『재활송마 가족 캠프』

----- 강은정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장학사)

경북특수교육, 직업·취업교육의 결실을 맺다

----- 박관모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주무관)

다가온(on),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성을 키우고, 가능성을 열다

----- 신아라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사)

특
수
교
육
》

담 다

내 아이의 특별한 출발, 든든한 동행 특수교육 첫걸음 안내

박수민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특수교육을 접하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제도와 절차 때문에 불안감이 앞서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환경’을 찾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와 선정·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삶 속 사례와 함께 풀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진단·평가 : 우리 아이를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는 단순히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단순히 ‘읽기가 약하다’로 끝내지 않고, 인지적 요인 때문인지 언어 발달 지연 때문인지, 혹은 정서적 요인과 맞물린 것인지 다각도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상담교사, 필요 시 의료 전문가까지 협력하여 학생을 다면적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맞춤형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선정 : 모두가 함께 내리는 신중한 결정

진단·평가가 끝나면,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부모님이 제출한 의견, 담임교사 및 전문가의 평가자료, 학생 본인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학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지,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학부모님의 의견이 매우 존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학부모님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수학교 배치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모든 목소리를 신중히 고려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영역>

3. 배치 :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찾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 : 특수교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춘 학교에서 교육받습니다. 다양한 치료와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장점입니다.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소속되면서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 수업에도 참여합니다. 통합교육의 장점과 개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있으면서, 특수교사의 순회지도나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장애가 심하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치란 단순한 '학교 결정'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필수)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 의뢰서 및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특수교육 지원센터	진단·평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선정 및 배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및 배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과정 이하 :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교 과정 : 경상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교육장 및 교육감	선정·배치 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 배치 결과를 해당학교장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결과 통지서)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

4. 학부모님의 역할 : 가장 중요한 동반자

진단과 배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학부모님입니다. 아이의 일상 속 모습, 강점과 어려움, 가족의 바람은 그 누구보다 부모님이 잘 아시지요. 아이의 행동 특성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교육 현장에서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배치가 끝난 후에도 학교의 특수교사와 개별화교육계획 (IEP) 수립과정에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초기 상담과 지원 :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하기

혹시 처음이라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북 도내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부모님은 초기 상담을 받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안내받으며 필요한 경우 진단·평가 절차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아이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어 줄 것입니다.

6. 마무리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삶을 위한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존중받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진단·평가와 선정·배치의 진짜 의미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부모님과 늘 함께 고민하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과 협력의 허브, 특수교육지원센터

김기희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장학사)

*모든 아이가 빛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아이마다 배우는 속도와 방법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배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그 가족, 그리고 교사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학교·가정·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원과 협력의 허브입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가.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심리검사, 발달검사, 행동평가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교육 환경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맞춤형 교육 지원

❖ **순회교육**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 교사가 직접 학교나 가정, 시설을 방문하여 수업을 지원합니다.

❖ **통합교육** :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학급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여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전문상담 및 진로직업 지원** : 심리상담, 행동중재 상담, 진로 및 직업교육 상담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 설계를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예: 점자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를 대여하고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특수교육 자료와 교구를 지원하여 학생이 학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 치료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치료지원 서비스, 방과후학교, 통학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합니다. 또한 필요한 곳에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라. 장애 인식개선 및 교원 연수

일반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전체의 통합교육 역량을 높입니다.

마.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상담, 부모교육, 입학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학생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 간 정보공유, 심리적 지지, 가족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3. 함께 걸어가는 길

특수교육은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모든 아이가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의 허브가 되어, 아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2022 특수교육지원센터 표준업무 매뉴얼. (2021). 경상북도교육청



1



2

1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

2 특수학급 가족 힐링캠프

함께 걷는 교육, 맞춤형 개별화교육과 행동증재의 만남

박철현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선생님, 저는 왜 자꾸 혼나야 해요?”

한 아이의 목소리가 가슴을 두드린다.

언제나 수업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고, 갑작스레 큰 소리를 지르곤 하던 그 아이는 사실, 자신도 답답했던 모양이다. 교실의 질서를 흔들던 그 행동들 뒤에는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지도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감각적 민감성으로 인해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그들의 행동은 그저 ‘문제 행동’이 아닌, 그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려 애쓰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장애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개별화교육계획(IEP)이다. 특수교사와 담임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한 명의 학생을 위해 교육계획을 세운다. 아이의 강점은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 목표와 지원 방법을 설계한다.

하지만, '계획'만으로 아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교실 속의 변화가 필요했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행동중재지원단이 함께했다.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 안동, 구미, 경산)를 통해 요청하면, 행동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관찰하고, 기능적 행동평가를 바탕으로 행동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들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현장에서의 실행을 함께 고민했다.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학교가 실현 가능한 맞춤형 행동지원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교과 수업 도중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교실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있었다. 교사는 힘들어했고, 아이는 자꾸 '문제아'로 낙인찍혔다.

행동중재지원단은 이 아이가 특정 시간에 지나친 언어적 요구를 받을 때 불안을 느끼며 회피 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중재 방안으로 '시각적 일정표*'를 도입하고, 사전에 예고된 전환 활동을 제공했더니 아이는 조금씩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다. 수업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교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개별화교육과 행동중재는 두 개의 줄이 아니라, 하나의 그물망이라는 것을!

IEP 안에 행동중재 전략이 녹아들고, 행동중재의 결과가 다시 교육계획을 수정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아이의 삶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문제행동'이라는 말 대신 '도움이 필요한 행동', '지원이 필요한 신호'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지고 있다.

수업 도중에 소리를 지르던 그 아이는 이제 교실 안에서 그림책을 펼치고, 친구들과 조심스럽게 눈을 맞춘다. 여전히 천천히, 조금은 삐걱거리지만, 아이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별화교육과 행동중재의 만남, 그것은 교사와 학생,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육지원체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교육 이야기다.

누군가를 위해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걷는 이 길을 지원하는, 나의 역할이 참 좋다.

*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도구로서 장애학생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혹은 하루 일과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사건의 순서대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정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연번	1	2	3
서비스명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행재활로봇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지원 시기	연중	연중	연중
지원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시각·청각·지체·뇌병변장애	경산자인학교 1대 배치, 중증장애학생 5명 대상	장애영아,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금액	-	1억원(로봇구입 및 운영비)	1인당 연 204만원 (월 17만원)
지원 방법	수요조사 후 보조공학기기 선정협의회를 거쳐 교육지원청에서 기기 구입 후 대여	수요가 가장 많은 1개 특수학교를 선정 후 목적사업비로 예산 교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료지원신청서 제출(학교) 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치료지원 기관, 영역, 방법 등 결정 3.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치료지원 신규 신청자: 소속 교육지원청에서의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후, 지원 가능(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협의 후 진행) 나. 기존 치료지원 대상자: 치료지원 영역/기관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3월 1일부터 지원 가능(기존 치료지원 영역으로 바로 실시 가능) 4. 교육지원청 순회치료 또는 외부기관 이용(예산 지원, 경북짱짱카드 이용)

4	5	6	7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연중	연중	연중	연중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초, 중,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특수학교 초, 중, 고등학생 중 희망자 2.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수학교 유, 초(3~6학년), 중, 고등학생 3. 특수학교 토요일방과후학교: 특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	만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	한 가정에 공·사립 유·초·중·고· 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자녀 이상인 가정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1인당 연 144만원(월 12만원) 2.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학급당 연 1,600만원 이내 3. 특수학교 토요일방과후학교: 학급당 연 700만원 이내	연 169만2천원 (월 14만 1천원)	지원방법 참고	연 150만원 (월 12만5천원)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신청서 제출 나.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기관, 프로그램 및 방법 결정 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대상자 선정 라. 교내 방과후학교 참여 또는 외부기관 이용 (예산 지원, 경복·짱짱카드 이용) 2.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참여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대상자 선정(학교장) →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참여 3. 특수학교 토요일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참여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대상자 선정(학교장) → 특수학교 토요일방과후학교 참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급식비,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 지원	1. 원거리 거주, 중증 장애, 보호자 동행 필요 등 상황에 따라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기준, 학생 하루 2회· 보호자 하루 4회 - 자가용 이용 시: 실제 주행거리 기준 산정, 보호자 하루 4회 2. 신청 절차: 보호자가 학교에 서류 제출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승인 → 월별·분기별 보호자 계좌 지급	가정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교에서 지원 항목 검토 후 예산 지원

1

도구를 넘어, 가능성으로!

- 경북교육청 보조공학기기 및 보행재활로봇 지원 사업

박철현(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1. 보조공학기기를 통한 장애 맞춤형 지원

장애를 가진 학생은 눈과 손의 움직임 제한, 청각적·시각적 정보 습득의 제한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신체 기능과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보행재활로봇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대여 사업이 아닙니다. 보조공학기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에 접근할 수 있게 돕고, 보행재활로봇은 움직임의 확장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참여를 높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의 운영 방향과 실제 지원 내용을 경북 특수교육 현장의 눈으로 소개합니다.

II. 경북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사업 운영 방향

1.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시각·청각·지체·뇌병변 장애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학습 접근성(읽기·쓰기·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자립을 위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2. 어떤 기기가 지원되나?

- 학습 지원 기기 : 전자책 리더, 화면확대기(돋보기형·모니터 확대기), 음성변환·음성인식 장치, 대체의사소통(ACC) 기기, 특수입력장치 등.
- 자립·생활 지원 기기 : 전동휠체어, 자세보조의자, 보조 손·발 장치, 보조 도구
- 기기 선정은 학습, 생활에 필요한 기기를 수요조사 후 교육지원청 선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3. 어떻게 운영되나?

- 신청과 대여절차 : 경상북도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확인 후 예약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 후 학년 단위로 반납이 이루어 집니다.
- 사용자 교육 :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사용과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 모니터링 : 사용 만족도, 학습·생활 기능 개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관리 합니다.
- 반납절차 : 사용 후 학교로 반납,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하여 물품을 반납합니다.

Ⅲ. 보행재활로봇 사업 운영 방향

1.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보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 특히 지체·뇌병변 등으로 보행 재활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학생별 안전과 치료적 효과를 고려하여 로봇물리치료사와 협력해 운영합니다.

2.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 지원 기관 : 시범사업으로 지원 대상학생이 많은 경산자인학교를 선정하여 보행재활로봇구입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구성 : 개별 평가에 따른 맞춤형 보행 훈련을 기본으로 하며, 물리치료사와 연계한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안전 관리 : 장비 사용 전·중·후 안전 점검, 물리치료사 및 담당교사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과 효과적 훈련을 보장합니다.
- 성과 측정 : 근력·균형·보행 패턴 개선 지표를 설정해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적 성과와 연계해 분석합니다.

3. 기대효과

- 이동 가능 범위 확대로 학습 참여 기회 확대 및 학생의 자립 능력 강화
- 신체 기능 향상과 성취 경험을 통한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
- 반복적이고 정밀한 움직임 구현으로 재활 훈련의 질과 효과 극대화

Ⅳ. 함께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

보조공학기기와 보행재활로봇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장비의 지원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한명 한명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과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도약이 가능하듯, 이 두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술과 재활이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치료지원으로 학생의 삶을 바꾸다!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I. 치료지원, 교육의 출발선이 됩니다.

교육이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해야 한다면, **치료지원**은 그 출발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지원은 단지 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치료지원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또래와 소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언어, 감각, 운동, 행동 등 다양한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에게 적절한 치료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철학 아래, 단편적 치료가 아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배움에 연결된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경북이 추진하는 치료지원 정책의 운영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II. 경북의 치료지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장애 특성에 따른 특별한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약 4,700여 명에게 연간 최대 204만원(월 17만 원 이내)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가 학교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치료’가 있습니다. 포항, 구미, 안동 등 9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지역별로 치료 영역(언어치료나 작업치료)이 다릅니다. 순회치료는 방학 중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내방치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부기관을 이용한 치료지원이 있습니다. 학생은 치료지원 전담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경우 학교와 외부기관 간 계약을 체결한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학교에 예산이 교부되거나, ‘경북짱짱카드’*를 통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지원은 개별화교육계획(IEP)**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학부모 의견 수렴과 학교 협의 과정을 통해 기관과 치료 영역이 정해집니다. 치료 내용과 결과는 기록지와 평가서를 통해 관리되며, 출결 및 교육활동 시간과의 연계도 고려됩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치료기관은 연중 긴밀하게 협력하며,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II. 치료지원의 현장, 그리고 성장 이야기

아래는 교육현장에서의 치료지원으로 성장한 학생,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랑 이야기할 때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요리,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치료를 받아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 구미 인동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〇〇〇 -

저는 경북 인동고등학교 특수교사 〇〇〇입니다. 위의 내용은 심리행동적응훈련과 언어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자유롭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언어능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교실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안정적인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직업을 갖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치료지원을 통해 변화할 학생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경북짱짱카드**: 농협과 연계하여 제작한 바우처카드로,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지원비 지급시 일반 카드 사용 방법과 동일하게 결제 가능

****개별화교육계획(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교육요구에 적합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장애특성, 학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교육

3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특별한 시간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1.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키우는 시간

경북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대상입니다. 단, 유치원생이나 전공과 학생, 자유수강권 또는 농산어촌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학교 밖의 프로그램 참여 시에도 개별화교육지원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 다양한 체육·문화·직업 관련 활동을 포함하며 학생 한 명당 월 최대 12만 원, 연간 최대 14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은 학교를 통해 강사나 기관에 지급됩니다. 단, 수익자 부담이 없는 무상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며, 학교와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은 학교를 통해 기관에 전달됩니다. 이때 경북짱짱카드(방과후 전용)를 활용해 가맹점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치료지원카드와 혼용은 불가합니다.

셋째, 특수학급이 자체적으로 개설한 방과후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가 필요하며, 지역 상황에 맞춰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다른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중심학교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유형은 자유수강권이나 농산어촌 방과후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II.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맞춤 보육과 교육

특수학교 방과후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모님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맞춤형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학급 단위로 운영되며, 보통 한 학급에 8명 이내로 편성하여 장애 특성에 따른 세심한 맞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방학 기간에는 별도의 방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학부모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하며, 학교장이 이를 최종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추가 선정도 가능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거나 개인 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며, 강사는 모두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엄선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II. 특수학교 토요일방과후학교 운영 : 주말에도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시간

특수학교 토요일방과후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학부모님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하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토요일방과후학교는 3월부터 12월 까지, 약 10개월 동안 운영되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기숙사에서 주말을 보내는 학생들은 기숙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운영 시간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토요일 4시간씩, 총 35주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학급은 학생 8명 이내로 편성하며, 2명 이하의 신청 시에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지도 강사는 특수학교 교사, 초·중등 교사, 재활복지교사,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보육교사 자격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로 엄격히 선정되며, 보조 인력은 교육 실무 직원 이상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원칙과 계획에 따라 특수학교 토요일방과후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IV. 경북특수교육 방과후학교 :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

경북특수교육 방과후학교는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4

따뜻한 교육, 튼튼한 통학길

김소연(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I. 학생과 가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하루는 학교로 향하는 통학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체적 어려움이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겪는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학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정적으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학생이 학습에 온전히 집중하고 가정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II.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거리에 따라, 그리고 이동 수단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거리 거주로 도보 통학이 어려운 경우
- 중증 장애로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 학생 혼자 통학이 어려워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

지원 방식은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 요금 등 실비를 보전하며, 편도 요금을 기준으로 학생은 하루 2회, 보호자는 하루 4회를 지원합니다.
- 자가용 이용 시 : 실제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보호자에게 하루 4회분을 지원합니다.

통학비 신청은 보호자가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화교육지원팀* 이 학생별 상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되며, 학부모는 실제 이동 경로와 횟수를 기록해 증빙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실제 통학 거리와 비용을 확인해 투명하게 진행되며, 학생과 가정이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는 팀으로 학교장,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으로 구성

Ⅲ. 안전한 통학, 행복한 배움

통학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통학 과정에서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멀고 불편한 통학길을 교육의 열정과 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동등한 출발선에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5

경북 특수교육대상유아, 맞춤형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튼튼하게 자라요!

강은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I. 왜 의무교육비 지원이 중요할까요?

경북교육청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만 3세부터 5세까지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유아들이 일반 유치원에서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은 장애 특성에 맞춘 교육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II.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3세부터 5세까지,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II. 지원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1인당 월 14만 1천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유아학비** 지원과 연계하여 집행됩니다. 지원금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급식비, 기타 교육 활동비 등 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 소요된 만큼 지원합니다.

IV. 어떻게 신청하고 관리할까요?

유치원이 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 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은 신청월부터 유아가 해당 월의 2/3 이상 출석했을 때부터 시작되며, 지원받는 유아도 교육과정 운영일의 2/3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V.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현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예산 사용 내역과 출석 기록, 집행 잔액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부모님과 유아가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유아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경북교육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 누리과정 :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공통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 유아학비 : 정부에서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6

두 아이의 웃음,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김소연(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I.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더 따뜻한 지원을

두 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교육과 생활 모두에서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가정이 안정을 찾고 학생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II.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한 가정에 공·사립 유·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시설 거주 학생이나 지원을 원치 않는 가정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 150만 원(월 12만 5천 원)이며,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한 후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예산이 지원됩니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학교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새롭게 선정된 가정은 선정·배치된 달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개월 수를 계산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III. 어떤 항목이 지원되나요?

지원 항목은 학생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 학교 교육경비 : 현장 체험학습비, 실습비, 교복·체육복, 교재·교구 구입비
- 자기계발·진로 : 진로·문화 체험비, 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대학 입시 전형료
- 보건·위생 : 목욕·이·미용 서비스, 방역물품, 신변처리 물품
- 생활용품·식품: 학생을 위한 생활용품, 식품(단, 외식비는 제외)

※ 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 치료지원비, 사교육비, 가전제품 등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V. 두 아이의 성장을 함께하는 경북교육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가정과 학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아이의 배움과 성장이 끊기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프롤로그 - 첫 입소의 설렘

늦은 오후, '꿈담채' 생활관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번진다. “양파는 어떻게 썰어요?”라는 질문에 친구가 다가와 함께 칼을 잡는다. 작은 부엌에서의 협력은 자립의 첫 걸음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전환기 장애학생들의 성인기 준비를 돕기 위해 2023년 12월, 상주 상희학교 내에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를 개관했다. 이름처럼 '꿈을 담고 채우는 공간'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3

3 지역사회 내 마트에서 학생들이 직접 장을 보는 장면

4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주방에서 학생들이 직접 요리하는 장면



4

2. 생활 속에서 배우는 진짜 자립

‘꿈담채’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실제 생활 공간에 머물며, 요리·대중교통 이용·시장 보기·개인 위생 관리·키오스크 주문 등 일상적인 기술을 몸으로 익힌다.

‘꿈담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엔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인으로 서류를 발급하고, 승차권에 예매 하는게 특히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연습하고 직접 성공했을 때, 아... 내가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이곳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꿈담채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첫 연습입니다.”라고 한 담당교사는 전했다.

3. 변화와 성장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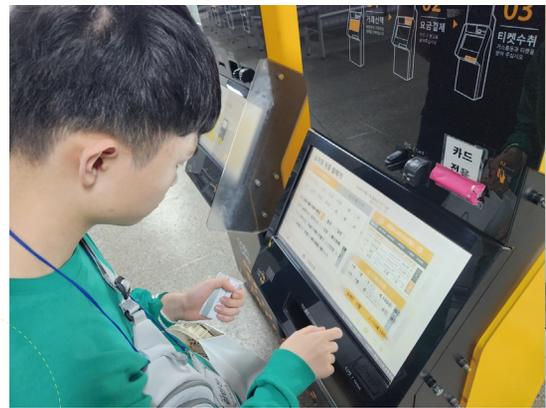
2023년 12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기에 있는 200여명의 장애학생이 ‘꿈담채’에서 생활훈련을 마쳤다.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의 변화는 뚜렷하다. 집에서는 잘 하지 않던 청소와 빨래를 스스로 하고, 처음 보는 버스를 타며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이 경험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마음을 심어준다. 수료한 학생 중 일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부 직업훈련센터 연계 주택에 우선 선발되는 혜택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5



6

- 5 무인승차권 발매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는 장면
- 6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장면

- 7 1인 1실로 제공되는 생활실을 청소하는 장면
- 8 세탁실에서 침구류를 세탁하는 장면

* 미담사례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는 학생들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마트) 이용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식단 계획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매주 지역 내 마트를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신기하게 보던 직원분들도 점차 적응하셨는지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시게 되었고, 학생들이 짐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장을 많이 본 날에는 마트의 배송 차량을 이용하여 짐을 옮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이제는 학생들이 매주 마트를 방문할 때마다 응원을 받으며 진정한 지역사회 적응을 이뤄내고 있다.



7



8

4. 앞으로의 꿈

경상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꿈담채’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성인기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꿈담채’에서의 작은 성공은 학생들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자산이 된다. 오늘 부엌에서 익힌 요리, 시장에서 계산한 경험,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온 기억이 쌓여, 언젠가 완전한 독립의 날로 이어질 것이다.



장애 학생, 꿈담채에서 일상 홀로서기를 익힌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바람, '자립'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자립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립은 자녀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돌봄이거나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자녀들이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르쳐야 한다.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아가 홀로서기를 준비를 하는 장애 학생들에게는 일상생활의 자립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꿈을 담고 채우는 공간, 꿈담채

부모의 마음으로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 자립 생활교육관인 꿈담채를 지난해 12월 20일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상주 상희학교 내 기숙사를 개축하여 꿈담채 공간을 마련하였다.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부와 진공과 재학생들이 일상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숙박형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명이 한 기수로 임시로 1인 1실로 된 학생 개별실에서 생활하면서 눈높이에 맞춘 다중교통 활용 교육, 요리 활동 체험, 위생 관리 교육, 지역사회 이용 교육 등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한 자립을 꿈꾸다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가 활동을 하러 간다. 무인주 문기(키오스크)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영회표 예매도 해 본다. 편의점에 본인이 먹고 싶었던 맥주를 스스로 생각해 내고, 식재료를 직접 사서 요리까지 하는 등의 일상의 모든 일을 꿈담채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도움과 배려 없이도 '나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감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막은 도전에 보길 바란다.

원천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여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따뜻한 경북교육 VOL. 118 2024 봄호 '꿈담채'>

예술로 피어나는 공감의 소리 '온울림' 앙상블 이야기

김정민(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음악으로 마음을 잇다”

‘온울림’ 앙상블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장애인예술단으로, 도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분야의 전문 연주자들이 참여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리는 연주를 선보이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온울림’이라는 이름에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온기(溫)와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말 ‘온’,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울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는 온 사회가 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온울림’ 앙상블의 따뜻한 여정을 함께하길 꿈꾼다.

1



“울림이 모여 세상을 바꾸다”

1. 프롤로그-첫 울림의 순간

가을비가 그친 오후, 포항명도학교 오케스트라실 한쪽에선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온다. 곧이어 바이올린의 깊은 울림과 클라리넷의 경쾌한 박자가 더해진다. 시선이 마주치면 서로 눈웃음을 나누고, 작은 고개 끄덕임이 음악의 시작을 알린다.

2024년 10월,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런 장면이 매일 펼쳐지는 장애인예술단 ‘온울림’ 앙상블을 창단했다. ‘온울림’의 이름처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울리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연주를 선보이는 예술단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음악으로 연결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2.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음악

‘온울림’ 앙상블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이다. 4명의 단원과 한명의 지휘자로 구성된 ‘온울림’ 앙상블은 한명 한명이 정말 소중한 존재이다. 온울림 앙상블의 단원들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모였다. 누구는 피아노 앞에 앉아 수많은 시간을 연습으로 채웠고, 누구는 크고 작은 무대에서 연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누구는 음악과는 동떨어진 다른 일을 하며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각자의 길을 걸어오다 이제 한 무대에서 같은 악보를 마주한다.**

정민성 단원은(피아노) **“음악하는 다른 친구들이 생겨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다른 악기랑 같이 연주하는 게 소리가 좋아요.”**라고 말한다. 온울림 앙상블의 지휘자이자 예술감독인 박은재 선생님은 **“온울림은 단순한 연주팀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라며 단원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다.



2

“관객과 하나 되는 순간,
음악이 진짜 울림이 됩니다.”

4. 앞으로의 길_예술의 힘, 울림의 힘

경상북도교육청은 ‘온울림’ 앙상블이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문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예술단 단원 추가 모집, 전문 강사 확충, 악기와 연습 공간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연 기획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온울림’ 앙상블의 음악은 단원들에게는 자립과 성장의 발판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감동과 변화를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전해지는 이들의 진심 어린 울림은 앞으로도 경북 전역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음악은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잇는다. 그리고 ‘온울림’ 앙상블은 그 증거처럼, 경북 곳곳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울림의 힘은 계속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곳에 쓰이게 될 것이다.

3. 음악이 만든 변화_장애인식개선, 예술로부터

창단 이후 ‘온울림’ 앙상블은 정기 합주와 파트별 전문 레슨을 통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왔다. 또한 도내 학교와 문화행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무대를 찾아가 연주하며 경북 곳곳에 음악의 울림을 전하고 있다.

특히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공감 문화 공연’은 관객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로, ‘온울림’ 앙상블의 따뜻한 연주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음악을 통해 관객과 하나되는 순간, 음악은 서로의 다름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음악을 통한 공감은 함께 걷는 첫걸음이었다.

이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멜로디는 장애를 넘어 하나 되는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의 희망을 보여주는 듯하다.

1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온울림’ 앙상블 단원과 예술감독

2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온울림’ 앙상블 창단연주회

꿈과 희망을 더하고(+)·나누는(÷) 『재활승마 가족 캠프』

강은정(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I. 왜, 재활승마인가?

재활승마는 회복을 도모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활치료로 알려져 있으며, 말의 움직임, 따뜻한 체온, 살아있는 생명체와의 교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 및 재활 활동을 말한다. 단순히 말을 타는 것을 넘어, 말과 교감하고 돌보는 과정 자체가 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잠재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II. 재활승마가 주는 이점

1. 신체적 효과를 증진한다.

재활승마의 신체적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말의 걷는 움직임은 사람의 골반에 3차원적인 움직임을 전달하게 되어 균형감과 자세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균형감각 향상에 도움이 된다. 둘째, 말의 움직임에 맞춰 신체를 사용하면서 코어 근육을 포함한 전신 근육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늘어나, 근력 강화 및 유연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셋째, 말 위에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며 운동 계획 능력과 신체 각 부위의 협응력이 좋아지며, 운동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넷째, 말의 움직임, 털의 질감, 온기 등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감각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2. 심리적·정서적·사회적 효과를 증진한다.

재활승마는 신체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을 준다. 첫째, 말을 통제하고 소통하는 경험은 자신감 및 성취감을 증진한다. 둘째, 동물과의 교감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며 정서를 안정시킨다. 셋째, 말과의 상호작용은 집중력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주의 집중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재활승마 과정에서 치료사, 말,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사회성 및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말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배우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재활승마 가족 캠프가 주는 효과

재활승마를 통해 장애 학생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 재활 및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친밀감 및 유대감을 증진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 재활승마 가족캠프를 9년째 이어오고 있다.

III. 2025년 상반기 재활승마 여름 가족 캠프를 마치고

2017년부터 시작된 경상북도교육청 재활승마 프로그램은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를 운영하여, 횟수로 17회째 행사를 마쳤지만, 재활승마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청자 가족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북 초·중학생과 가족들에게 재활승마의 인기는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재활승마 가족 캠프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북도민일보에서 주관하였으며,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의회의 후원과 관심으로 각 지역에서 선발된 30가족 90명이 함께하며 캠프에서 꿈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늘 희망자가 넘쳐나는 재활승마 가족 캠프지만 안전상 허가된 인원으로만 제한하여야 하여, 좀 더 많은 가족이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이라면 초·중학교 시절에 한 번쯤은 재활승마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갖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기억할 수 있는 교육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년 상반기 재활승마 여름 가족 캠프가 마무리된 지금, 재활승마 가족 캠프에서는 다가올 하반기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올해도, 내년에도 경상북도 재활승마 가족 캠프는 꿈과 희망을 싣고 말을 달릴 것이다.



경북특수교육, 직업·취업교육의 결실을 맺다

박관모(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I. 직업·취업교육이 왜 중요한가?

수확의 계절 가을처럼, 경북 특수교육도 직업·취업교육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직업·취업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립, 존중받는 일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관문입니다. 적성과 강점에 맞는 일을 찾고, 실제 현장에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은 학교 교육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은 다양한 지원 체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취업교육 정책의 취지와 운영 내용을 독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결실을 맺은 학생의 성장 이야기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II. 경북특수교육의 직업·취업교육 정책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직업·취업교육 정책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고,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컴퓨터 활용 등 다양한 자격증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과정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사회로의 자연스러운 환경 전환을 돕습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직무훈련, 모의면접, 진로 멘토링, 지역사회 체험 등으로 구성된 계획을 심사·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졸업 이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학교 밖 사회와 직장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협업으로 설치, 운영 중인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실제 직무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페 운영, 사서 보조, 세탁 서비스, 산림복지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갖춘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검증받고, 전국 각지에서 온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과 직업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값진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은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실습 컨설팅과 순회지도, 학부모 교육, 취업처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정책은 서로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여정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을 탐색하고, 자격증 취득으로 능력을 키우며, 전국대회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마침내 원하는 일터에 안착하는 길. 이것이 바로 경북 특수교육이 그리는 직업·취업교육의 큰 그림입니다.

Ⅲ. 성과와 변화: 한 학생의 이야기

가명의 학생 '민수'는 사람을 좋아하고 예의가 바르지만, 낯선 환경에서는 쉽게 긴장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첫 등교일에 대학교 진학을 꿈꾸고 있다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설득과 조언을 들은 민수는 취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도예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직업체험을 하던 어느 날,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깊은 흥미를 느꼈고 커피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민수는 특수교사의 소개로 교육청의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에 신청했고, 선정되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어 그해 가을,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바리스타 부문에 경북 대표로 출전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며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던 민수였지만, 자격증 취득과 전국대회 입상,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카페 바리스타로의 취업까지 성공하며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인정되어 졸업식에서는 대표로 무대에 올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수는 구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멋지게 근무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



3



4



5



6



7



8

1~4 대회 준비와 대회 출전모습
5~8 취업과 공로상 수상 모습

다가온(on),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성을 키우고, 가능성을 열다

신아라(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사)

특수교육에서 강조하는 '통합교육'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물리적 환경 속에 함께 있다고 해서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다문화'라는 말은 '특수'만큼이나 우리에게 낯설게 들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들이 낯설지 않고, 학생 모두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는 특수교사로서 늘 마음 깊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다.
부모님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학습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친구'로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가온(on)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다문화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관내 유·초·중학교 통합학급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
아 선정된 유·초등학교 15교(원) 20학급 372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
상자 통합교육지원, 다가온(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가온(on)'은 다문화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이끌어내다
(on)'라는 뜻으로 사회성 향상, 학교생활 적응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보드게
임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다가온(on)! 찾아가는 보드게임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게임 속 역할 수행과 성공 경험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드게임 활동 후에는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가온(on)!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어지며, 지역 유관기관의 다문화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문화적 차이 이해, 다양한 나라의 전통, 언어, 음식, 의상 등을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같이 놀자, 친구야

특수학급은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통합학급은 사정이 다르다. 모둠별로는 4~5명, 학급 전체로는 20명 이상의 친구들이 어울리는 공간이다.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몰라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놀이 규칙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경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문화적 차이와 발달 특성 때문에 또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안되거나 그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학생들이 가진 차이가 그들의 세계를 좁히는 벽이 되는 것이다.

학생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의사소통 능력까지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 활동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소규모 모둠 안에서 간단한 규칙을 따라가는 게임을 통해 ‘함께 하는 경험’을 익혔다. 점차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고 반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자, 아이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배우고, 협동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게임 속에서 “다시 해보자”, “이번엔 같이 해보자”라고 주고받는 말들이 오가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게임이 끝난 뒤에도 웃음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통합이 교실 안에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낯섬을 친근함으로

놀이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는 다문화 감수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자주 접할수록 낯설음은 줄어들고 익숙함이 자리 잡으며, 익숙해진 마음은 곧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특별한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를 위해 다문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 음식, 옷, 장난감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인사말을 따라 하고, 전통 의상을 직접 만져보고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닮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네”라며 신기해했고, 그 낯섬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체험들이 쌓이며 학생들 마음 속에 존중과 이해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함께 자라나는 통합의 교실

다가온(on)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보인 변화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또래와의 놀이 참여율이 높아졌고, 쉬는 시간에도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놀자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급 친구들 역시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통합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은 결코 별개의 주제가 아니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모든 아이가 한 교실에서 더불어 자라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서 시작된 변화가 언젠가는 아이들의 삶 속에서 더 큰 이해와 가능성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PART. 3

Community (함께하는 현장)

만남,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들

----- 김주연 (경상북도교육청 온울림양상블 / 이성빈 단원 부모)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꿈을 담고 채우는 공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

-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담은 ‘꿈담채’

----- 이수빈 (상희학교 / 교사)

꿈담채가 나에게 준 선물

----- 정영민 (영주제일고등학교 / 3학년)

꿈을 이루어주는 꿈담채

----- 신아연 (사동고등학교 / 3학년)

특
수
교
육
》

담 다

만남,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들

김주연 (경상북도교육청 온울림양상블 이성빈 단원 부모)

얼마 전 성빈이가 속한 온울림(경북교육청소속 장애인예술단)이 포항교육지원청공연을 하던 날,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적힌 스탠드현수막이 행사장을 찾은 선생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를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군가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특수교사들은 그들이 있는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분들이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며 도약시키고 교육하신다. 인간은 본디 자기중심성이 이타심을 이길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나와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타인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시선을 맞추며, 너는 한 그루 나무라 명명하여주고, 기꺼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분들, 특수교사로 불리는 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분들을 통해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그 어떤 세상도 아름다운 희망으로 물들게 되는듯하다.

그들은 빛이 닿지않는 어두운 구석으로 차가운 온도와 결핍, 부족함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내가 낳은 소중한 첫 아이가 장애를 가졌음을 알았을 때 나에게 그런 그늘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성빈이가 세 살에 1급 자폐성 장애를 판정받고 나는 거의 매일 눈물바람이었다. 자폐증은 발병원인이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뜻에서 Autism으로 불리운다. 정규교육 스쿨링 밖에는 뚜렷하게 밝혀진 치료법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후 유치원, 초/중/고 특수교육시스템이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6살 무렵 성빈이는 매일 아침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행복했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피아노를 배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성장해갔다. 초등학교에서는 특수반 선생님의 안내로 여러 콩쿨과 국립특수교육원의 음악캠프에 참여하며 성빈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계기들을 만날 수 있었다.

웨이메이커들(way makers)

돌이켜보면 나와 성빈이는 중복장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느라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커다란 우산이 되어준 특수교육의 수혜를 톡톡히 받은 자였다.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총신대학교에 정시로 입학 할 수 있었다. 또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코아챔 등 유수의 단체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수많은 꿈의 무대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후 포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며 이러한 도전이 중단되지 않고 온울림 앙상블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포항에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셨다. 포항명도학교 김정일 前교감선생님과 박은재 선생님, 안동교육청의 김정민 장학사님, 바로 이분들이 길이 없는 곳에서 앞장서서 길을 헤쳐가고 계신 분들이었다.

선생님들께선 오랜 시간 특수교육 현장에서 제자들이 겪는 취업의 현실적 제약들을 지켜보시며 평소 안타까움이 크셨다고 한다. 장애인고용을 골칫거리로 여기며 의무고용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명도학교 어울림오케스트라가 배출한 음악인재들을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고용하여 교육성장모델의 귀감으로 삼는 결출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다.

꿈꾸던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그에 따른 시간적 배경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물리적 공간적 배경이 뒤따라야 한다. 다행히도 온울림앙상블이 창단되기까지는 세 분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고, 여기에 편견 없이 귀 기울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임종식 교육감님과 백희옥 정책국장님 외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다름과 스펙트럼의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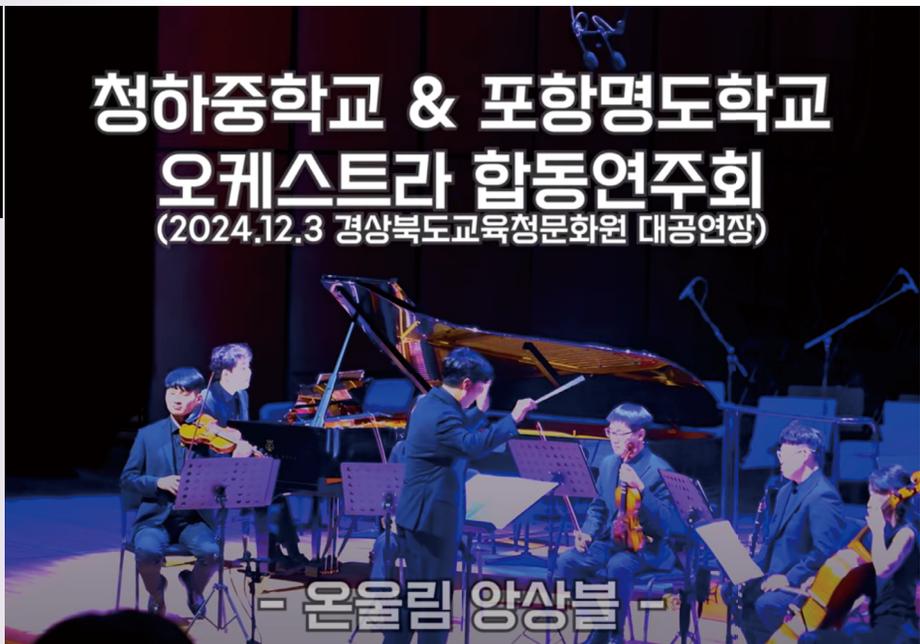
‘온울림’은 제일 만형인 바이올린 단원 이예찬, 클라리넷의 이승형, 바이올린의 이성빈, 피아노의 정민성 모두 남자단원에 포함출신이라는 점을 빼고는 말은 파트도 제각각, 키도 체격도 성격도 제각각이다. 장애를 지녔다 하나 어쩔 이리 다른 모양들이 만났을까 싶다. 하지만 그 다름이 어울림이 되어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의 정점에서 유니즌을 이룬다. 일년 가까이 지내오며 이제는 가족같이 된 단원들이다. 매월 십여 차례 연주여행을 함께 다니며 나무의 나이트가 쌓여가듯 연주관록을 쌓고 있는 중이다.

작년 12월 3일의 창단연주회무대를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에 놀라셨고 눈시울을 적셨다고 한다. 당사자인 앙상블 단원과 부모들의 노력뿐 아니라, 그들투성이 제자를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많은 분들과 선생님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청중에게로 전해지며, 그리고 무대 뒷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수고의 집합체가 투영되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앞으로도 온울림이 ‘그들’과 ‘다름’과 ‘장애’가 사랑을 꺾을 수 없음을, 비 온 뒤 피어나는 무지개 같은 희망을 세상 곳곳에 따뜻한 울림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영상 재생 QR코드>



<온울림 연주 동영상>

<https://youtu.be/SUgvQcr9Dio?si=CWrzACoqLLKry3Q0>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담은 ‘꿈담채’-

이수빈 (상희학교 교사)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죠. 익숙한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립생활 훈련을 잘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막상 입소 후 학생들을 보니 저보다 아이들이 더 잘 해내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꿈담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인솔하며 느낀 소감이다.

꿈담채는 성인기를 앞둔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부, 전공과 학생들의 전환교육을 위하여 실제 생활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역량을 키우는 시설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희학교 전공과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 중요한 교육 목표인 만큼, 이번 입소는 그 첫걸음을 연습하는 소중한 전환교육의 장이 되었다. 기존의 보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생활 중심의 자기 주도적 훈련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간 1인 1실에 입소하여, 스스로 식사 계획을 세우고 마트를 이용해 장을 보고, 식재료를 손질하고 직접 요리했다. 아침 기상부터 세탁, 정리 정돈, 위생 관리까지 모든 일상을 주도적으로 실천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화관, 보건소, 마트 등을 방문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여가 활동도 체험했다.

특히 키오스크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계산하고, 대중교통 앱을 사용하여 상주 시내 곳곳을 다녀오는 일정은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 체험은 단순한 ‘생활 실습’을 넘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연습 공간이었다. 정해진 수업 시간과 과제가 주어지는 학교 수업과는 달리, 꿈담채에서는 ‘오늘 뭐 먹을까?’, ‘어떻게 가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와 같은 일상적 고민 속에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협업과 배려를 실천하게 되었고, 리더 역할을 자처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꿈담채 마지막 날, 참여 학생들에게 간단한 소감을 묻자 이런 말들이 나왔다.

“마트에서 직접 계산한 것도, 친구들과 식사 준비를 함께한 것도 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는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볼래요.” (전공과 1학년 A학생)

“2박 3일이 너무 짧았어요. 요리도 더 해보고 싶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시간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공과 1학년 B학생)

꿈담채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해봤다’는 경험은 학생들 안에 자신감이라는 씨앗이 자리 잡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짧은 일정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곧 ‘더 많은 체험, 더 긴 시간의 자립 학습 기회’에 대한 요구이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2박 3일 간의 꿈담채 프로그램은 학교 울타리 안의 교실 수업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의 진짜 삶을 미리 경험 해보는 뜻깊은 전환교육의 기회였다. 꿈담채 체험 시간이 조금 더 길어 각 활동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한다면 일상에서의 자립 루틴을 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프로그램에 직업 탐색 요소가 더해진다면, 단순 자립생활을 넘어 졸업 후의 실질적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공과 학생들에게 꿈담채는 단지 체험 공간이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처럼 실제 생활 기반의 전환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꿈담채가 나에게 준 선물

정영민 (영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꿈담채 활동이 최고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생활에 대한 막연함이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및 생활이 바뀐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집을 떠나 3~4 일간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꿈담채 활동에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꿈담채 활동에서는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하였다. 첫째, '식사' 는 식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요리를 하였고, 배달의 민족 어플을 이용하여 배달음식 시켜먹기, 근처 식당을 찾아서 밥먹기를 하였다. 둘째, '교통수단' 은 택시타기, 기차타기, 시내버스타기, 시외버스타기를 하였다. 셋째, '집안일 경험' 은 방꾸미기, 청소하기, 방정리하기, 혼자 자기, 옷세탁하기 등을 하였다. 그 외에 공공기관 방문하기, 영화관람, 라탄공예 등을 하였다.

꿈담채 활동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스스로 모든 활동을 하다보니까 평소에 내가 어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였다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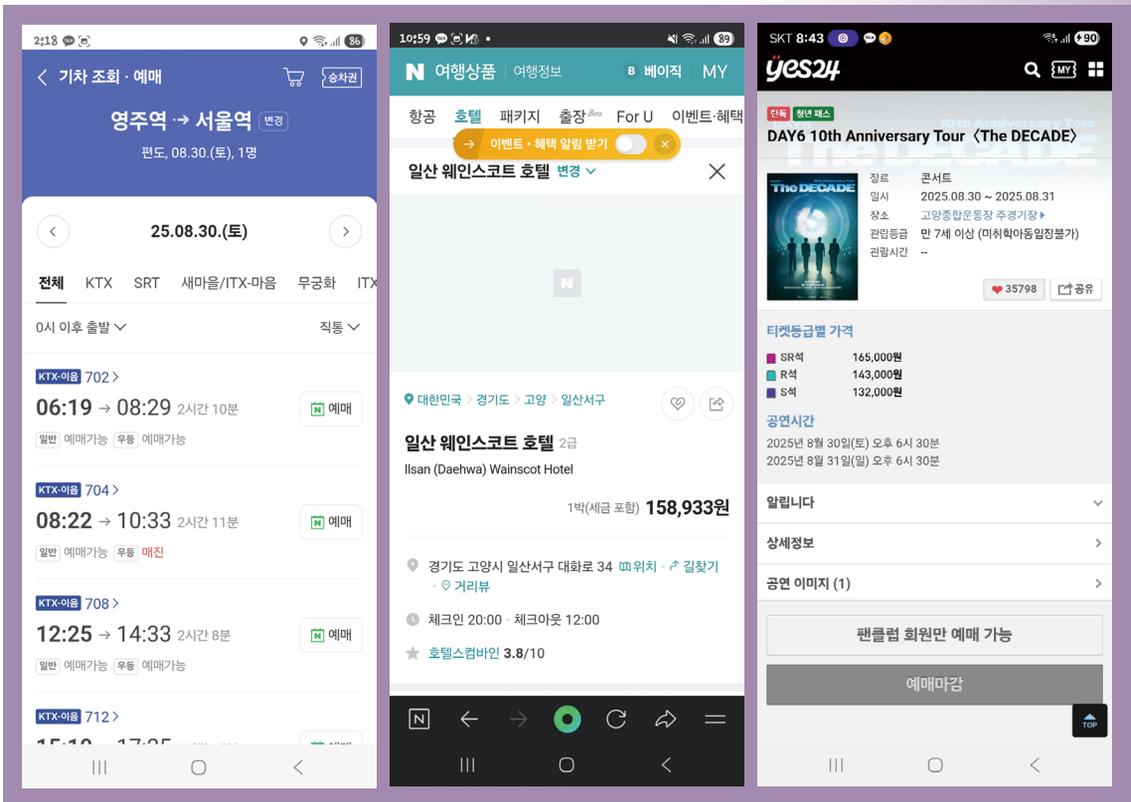


<요리 하기>

꿈담채에서 배운 것으로 '콘서트 관람 계획하기'

나는 요즘 음악에 관심이 많다. 3월에 일렉기타를 구입하였고 유튜브를 통해 일렉기타 연주를 취미로 연습하고 있다. 연습을 하다보니까 직접 콘서트를 가보고 싶어졌다. 마침 좋아하는 밴드 '데이식스'의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꿈담채에서 배운 것들을 이용해 콘서트 관람 계획을 세웠다. 첫째, '교통 수단 예매하기' 이다. 영주에서 고양까지 가는 방법은 영주 - 서울은 KTX, 서울 - 고양은 GTX-A 를 타는 것이다. GTX 는 예약이 필요없다고 하여 일단 기차표를 예약하였다. 둘째, '숙박 계획하기' 이다. 콘서트가 고양에서 밤 10 시에 끝나게 되어 당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다. 고양종합경기장 근처의 호텔을 검색해보았고 다행히 아직 예매가 가능하였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학생 혼자 숙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호텔에 전화를 해보니 '보호자 동의서' 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작성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셋째, '식사 계획하기' 이다. 콘서트가 시작하기 전 저녁식사와 아침식사를 먹어야 된다. 콘서트 전 저녁은 호텔에서 '배달의 민족' 으로 먹고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람권 예매하기' 이다. 에스 24 에서 관람권을 예매를 한다. 오늘은 팬클럽 회원만 예매가 가능하고 내일 아침에 예매를 할 수 있다. 꼭 티켓팅에 성공하였으면 좋겠다.



<기차표 예매하기>

<숙소 예약하기>

<관람권 예매하기>

꿈담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어플 사용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와 자립생활에 대해 경험하여 보니까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생겼다. 앞으로 펼쳐질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생활에도 꼭 성공할 것이다.

꿈을 이루어 주는 꿈담채

신아연 (사동고등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꿈담채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신아연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혼자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꿈담채에서 보낸 소중한 며칠 덕분에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간 하루의 시작과 끝 프로그램 1일차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약속들을 배우고, 앞으로 펼쳐질 자립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식과 석식 준비 과정이었어요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보고, 직접 요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서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낼 수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특히 정리·수납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한 의생활 관리 수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옷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수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제 방도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개인 위생 관리까지 스스로 챙기면서, 하루를 온전히 제 힘으로 마무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여가를 즐기다 2일차에는 아침 산책과 운동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간편식으로 조식을 해결하고, 마트와 약국을 방문하며 실생활에 필요한 심부름을 직접 해봤습니다. 특히 '마이홈 꾸미기' 시간은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직접 만든 공간에서 친구를 초대해 다과 파티를 열었던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었고, 대중교통 이용 교육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택시를 직접 이용해보면서 길을 찾고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 혼자 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라탄 공방에서 여가 시간을 보낸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와 소통하며 건강을 챙기다 3일차는 더욱 다양한 사회 경험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동주방과 마이홈 분리수거를 하면서 공동생활의 중요성을 몸소 배웠습니다. 편의점 택배 보내기 체험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부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학교기업 카페를 견학하며 사회생활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어보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경험은 새로운 재미를 주었고, 건강 관리 인바디 측정을 통해 제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바로 요가 체험이었습니다. 요가실에 들어섰을 때 처음 맡아본 강한 향 때문에 몸이 불편했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끝이 줄지 않은 바람에 무척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때 선생님과 친구들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숙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꿈담채, 자립의 꿈을 키우다’ 짧은 며칠이었지만 꿈담채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스로 밥을 해 먹고, 빨래를 하고, 용돈을 관리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나가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담채에서의 경험은 제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더욱 당당하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상주 상희학교와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ART. 4

Academic (연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유형이 대학진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임소정 (인천대학교 / Academic Advisor),

조성빈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조사원)

특
수
교
육
》

담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유형이 대학진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임소정(인천대학교 Academic Advisor)
조성빈(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I. 서 론

특수교육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통합교육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숙향, 2010). 이처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발달을 통한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점을 전제하였을 때, 고등교육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현대사회 통합에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동일 외, 2012). 특히 대학교육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 대인관계, 사회참여 및 만족도, 삶의 질이 특수학교 전공과, 보호작업장 훈련생과 같은 직업교육 경험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 (박정훈, 김종인, 2020) 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고등교육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동일 외, 2009; 김경화, 조현정, 2013; Camarena & Sarigiani, 2009).

* 본고는 '임소정·조성빈(202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유형이 대학진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32(1), 1-26.'을 기초로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한편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두되어 왔다. 통합교육은 사회성 및 대인관계 발달을 촉진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숙향, 안혜신, 2011; Casey et al., 2006). 특히 학업성취도에 있어 그 결과가 두드러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Dessemontet, Bless, & Morin, 2012; de Graaf, van Hove, & Haveman, 2013). 이 같은 결과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교실 환경, 주변 친구들과의 학교 생활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진학 의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학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진학률은 차이가 존재한다. 2024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6,247명 중 일반학교 일반학급(이하 일반학급)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약 65.7%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하 특수학급) 졸업생 약 57.5%, 특수학교 졸업생 약 59.9%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024). 비장애학생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대학진학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소폭 높다는 것은 그간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던 대학진학에 있어 학교 유형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

학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진학률

2024년 2월 기준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대학진학률	65.7%	57.5%	59.9%

출처: 교육부(2024)

본고에서는 개인이 특정 단계까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희망을 의미하는 교육포부(김예성, 오승환, 2016)를 대학진학 의도로 구체화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높은 교육포부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도 및 긍정적 학교 인식 등을 보이며(박윤정, 2014), 실제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Wei et al., 2016). 더불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교육포부를 검증한 Casey et al.(2006)은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비해 4년제 이상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과 전문직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경험에 주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유형이 대학진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진학 의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제1차(2018)-제4차(2022) 데이터 중 중·고등학생의 표본을 횡단면으로 활용하였다.

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기본 정보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제1차(2018)-제4차(2022) 데이터 중 중·고등학생의 표본에서 추출한 241명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우선 학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소속된 학생은 138명(55.9%),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학생은 61명(24.7%), 특수학교에 소속된 학생은 42명(17.0%)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49명(20.3%), 대학교는 154명(63.9%), 대학원(석/박사)는 12명(5.0%), 잘모름은 26(10.8%)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대상의 기본정보 (단위: 명, 백분율)

변인		n	%	변인		n	%
학교 유형	일반학교 일반학급	138	55.9	희망하는 교육수준	고등학교	49	20.3
	일반학교 특수학급	61	24.7		대학교	154	63.9
	특수학교	42	17.0		대학원(석/박사)	12	5.0
잘모름					26	10.8	
합 계						241	100

2.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유형에 따른 대학진학 의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고에서는 희망하는 교육수준 중 대학교 및 대학원(석/박사)을 선택한 응답에 대학진학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학교 일반학급 소속 학생의 85.7%, 일반학교 특수학교 소속 학생의 64.7%, 특수학교 소속 학생의 65.8%가 대학진학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학진학 의도($F = 6.558, p < .01$)는 학교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 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

변인	학교 유형	n	M	SD	F(사후검정)
대학진학 의도 (대학이상 = 1)	일반학교 일반학급	126	.857	.351	6.558** (A)B,C)
	일반학교 특수학급	51	.647	.483	
	특수학교	38	.658	.481	

** $p < .01$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유형이 대학진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 유형이 대학진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모형은 독립변인인 학교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성별, 소득, 부모학력, 보호자와의 대화, 친구의 배려,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문제, 전환교육 참여 등의 변인을 설정하여 효과를 통제하였다.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29.4%(Cox & Snell), 45.1%(Nagelkerke)로 나타났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특수학교 재학(B = -1.274, p < .05)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통제변인의 효과로는 보호자와의 대화(B = 1.992, p < .001), 학교생활 문제 중 학업(B = -1.463, p < .05), 시설 및 이동(B = 2.329, p < .05)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대학진학 희망 승산비는 0.22로, 대학진학 의도를 지닐 승산이 일반학교 재학생에 비해 약 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문제 중 학업은 대학진학 의도 승산 하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와의 대화는 대학진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와의 대화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대학진학 희망 승산이 6.329배 증가하였다.

〈표 4〉 학교 유형이 대학진학 의도에 미치는 영향

		B	S.E	Exp(B)
독립변인(학교 유형)				
(일반학교 특수학급 = 1)		-.586	.562	.556
(특수학교 = 1)		-1.515*	.653	.22
통제변인				
성별		-.209	.516	.811
log가계소득		.978	0.5	2.66
부모학력		.055	.101	1.056
보호자와의 대화		1.992***	.57	7.329
친구의 배려		.245	.474	1.277
학교생활 적응		-.803	.454	.448
학교생활 문제				
(교사와의관계 및 수급 = 1)		.969	1.31	2.635
(학업 = 1)		-1.463*	.689	.232
(교우관계 = 1)		-.98	.659	.407
(시설 및 이동 = 1)		2.329*	1.153	10.27
전환교육 참여		-.17	.357	.844
상수		-7.416*	3.275	.001
R ²	Cox&Snell R ²		.294	
	Nagelkerke R ²		.451	
χ ² (df)			60.199(13)***	
Hosmer & Lemeshow (p)			10.978(.203)	

- 주1. 독립변인은 학교 유형으로 준거집단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임.
 주2. 통제변인 중 학교생활문제의 준거범주는 학교생활 문제없음임.
 주3. *p < .05, ***p < .001

III. 논의 및 제언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업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유형이라는 교육적 환경이 학업과 생활 경험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부 변인은 학교 유형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인의 특수학급 소속여부에 따라 학교생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식적 통합교육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제도의 한계를 시사한다. 또한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학교생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간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과 학업의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환경을 통합교육에 기반하여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진학 의도와 승산비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통합교육 환경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기적인 교육 목표 형성과 대학진학 의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합교육 환경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학업적인 도전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며(de Graaf, van Hove, & Haveman, 2013), 상대적으로 비장애학생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이숙향, 안혜신, 2011; Casey et al., 2006) 학업적 기대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의 환경이 대학진학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환경을 가급적 통합환경에 주안점을 둔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2024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김경화, 조현정. (2013). 명문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8(2), 219-243.
- 김동일, 고혜정, 정소라, 김주선, 김수연. (2012).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에서의 리질리언트한 통합과정.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4), 295-318.
- 김동일, 손지영, 김희진, 강영아, 정소라. (2009). 장애대학생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8(4), 231-258.
- 김예성, 오승환. (2016).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75-98.
- 박윤정. (2014). Secondary schooling predictors for postsecondary educational aspirations and enrollment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Findings from the NLT2. 특수교육학연구, 48(4), 223-246.
- 박정훈, 김종인. (2020).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24(3), 41-63.
- 이숙향. (2010). 국내 중등 통합교육 연구의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3), 339-369.
- 이숙향, 안혜신 (2011). 중등 통합교육의 현실 및 지원요구에 대한 질적 연구: 장애학생과 부모의 통합교육 경험 및 인식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3(1), 203-235
- Camarena, P. M., & Sarigiani, P. A. (2009). Postsecondary educational aspirations of high-functioning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their parents.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24(2), 115-128.
- Casey, L., Davies, P., Kalamouka, A., Nelson, N., & Boyle, B. (2006). The influence of schooling on the aspirations of young peopl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2), 273-290.
- Cooney, G., Jahoda, A., Gumley, A., & Knott, F. (2006). You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tending mainstream and segregated schooling: perceived stigma, social comparison and future aspiration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0(6), 432-444.
- Dessemontet, R. S., Bless, G., & Morin, D. (2012). Effects of inclus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adaptive behaviour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6(6), 579-587.
- de Graaf, G., van Hove, G., & Haveman, M. (2013). More academics in regular schools? The effect of regular versus special school placement on academic skills in Dutch primary school students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7(1), 21-38.
- Wei, X., Wagner, M., Hudson, L., Yu, J. W., & Javitz, H. (2016). The effect of transition planning participation and goal-setting on college enrollment among youth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37(1), 3-14.

온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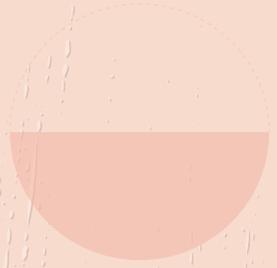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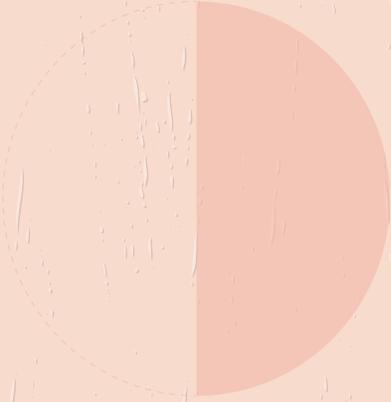
2025년 가을호
Vol. 11.

발행일	2025. 9.
발간등록번호	2025-36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총괄	기획예산관 정종희
편집주간	기획예산관 장학관 정기효
편집담당	기획예산관 주무관 박지현
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TEL. 054-805-3116 FAX 054-805-3149
홈페이지	http://www.gbe.kr
디자인인쇄	주식회사엘오알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왕일

경북교육 WEBZINE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